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전주시, 종합대책 가동 재해·청소·교통 등 22~26일 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등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 관광객이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총괄반과 청소대책반, 교통대책반, 재해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휴기간동안 총 549명의 시청 직원들이 휴일을 일부 반납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자체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종합상황실과 자체상황실에서는 시민들의 편안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과 도로, 상하수도, 청소, 가로, 보안 등의 6대 생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청 종합상황실 4개반은 반별 1명은 상황유지하고, 1명은 현장순찰을 통해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완산·덕진구청의 생활민원 처리반은 연휴기간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찰서와 소방서, 한전, KT, 도시가스 등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운영되는 청소상황반은 한옥마을, 서부신시가지, 남천교, 오거리광장, 영화외거리, 견고실은거리, 충로로·팔달로버스정류장, 전북대구청문,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 청소를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교통대책 상황실에서는 차량이동상황 파악과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처리는 물론, 효자공원묘지와 천주교공원묘지에도 근무자가 파견돼 성묘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돕게 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향나들이와 성묘 등을 돕기 위해 전국으로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이시콜)도 증회 운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추석맞이 나눔행사와 전통시장장보기 행사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모든 시민과 귀성객이 불편함 없는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두가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건·사고 예방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대처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18일 전주2대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군부대, 경찰, 소방서, 교육계, 병무청, 교도소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추석명절 제품 과대포장 집중점검

전주시 완산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 롯데마트 등 5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명절 전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하며, 18일 10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8일 완산구에 따르면, 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은 완구류 4종, 화장품류 4종, 주류 1종, 건강기능식품 1종 총 10개 제품으로 해당 제조사로부터 전문기관에 과대포장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완산구는 점검기간 동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이 집중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해 이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추석을 맞아 각종 기획 상품이 다량 출시되는 주류·가공식품·화장품류·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류 등이며, 점검 방법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여부와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하고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완산구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명절 및 특정 기념일이 집중된 시기에는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사전 집중 점검을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주

시, 어린이집 찾아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나선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시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알뜰어린이집을 찾아 '유아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구교육은 이번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만 총 19회에 걸쳐 1,40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유아들에게 △형제·자매의 소중함 △타인에 대한 배려 △협업능력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에 아이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과 대

답을 통해 저출생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마술공연과 세계명작동화인 '공주'를 구한 삼형제'를 재구성한 인형극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 기법을 활용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에 앞서,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관련 지침법규를 개정하고 출산장려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7월부터는 그간 둘째아에게 지급해온 출생축하금을 첫째아 탄생 시에도 지급하고 출생아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출생 전 일정기간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송효철 기자

금감원-육군 35사단, 장병 금융교육 협약

금감감독원(부원장보 정성웅)과 전북지역방위사단인 육군 제35보병사단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군(軍)장병들에게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을 지속 실시, 장병들의 현명한 금융생활과 금융사기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국가수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교육 실시) 은행, 보험 등 금융의 기초지식 및 거래시 유의사항, 신용 및 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사례 및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에 관한 교육, (상호협력) 금융감독원 전

북지원(지원장 김소연)과 35보병사단 재정참모부는 군(軍)장병 금융교육 등의 성실수행을 위해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협력 했다.

한편,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는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육군 35보병사단은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 35보병사단 군(軍)장병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함께 지속 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인력 미스매치 해소 채용 박람회

전주시-고용노동부, 내달 24일 개최

2018 제2회 전주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채용 박람회(전주시, 고용노동부, 직능경제인연합)가 오는 10월 24일 오후2시 전북여성 교류 문화센터 별관 1층, 2층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지원사업으로 '취업을 위한 역할 강화 프로그램 중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신청방법은 참가신청서를 꼼꼼히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 이메일(jj-work@naver.com) 또는 팩스(063-

271-3070), 수신 확인 전화를 하면 된다. (전화: 063-252-3070)

또한, 참가 기업해택은 참가기업 면접을 위한 부스 및 책상/의자 등 기자재 등이 지원되고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문구류 및 문서지원 서비스 등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에서 원하시는 인재를 매칭한다고 밝혔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063-252-3070 블로그: http://jj-work.blog.me/)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해병대전우회와 아중호수 환경정화 활동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해병대전우회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아중호수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사)해병대전우회 전주지회(회장 이학범) 회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시청 직원 등 30여명이 함께 아중호수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해병대전우회 회원들은 고무보트와 잠수복 등을 활용해 지난달 집중호우와 장맛비로 인해 호수로 떠내려 온 쓰레기와 부유물을 수거했다. 특히, 수중과 수변구역에 쌓여있는 쓰레기까지 수거해 아중호수를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만들었다.

한편, 아중호수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호수 순환대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 '프리미아 놀자' 공연

송천정보통신학교(전주소년원, 원장 오연호)는 18일 교내 강당에서 소풍과 감동이 함께하는 '프리미아 놀자,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프리미아방송국과 김덤편터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소년원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공연은 전문MC 고정두의 사회로 CCM 가수 김상실, 심어송라이터 임혜진, 원종철의 공연과 학생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했다.

오연호 교장은 "학생들이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에 참가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수용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자랑에 나선 선모군은 "케이윌의 '선물'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가수 임재민님이 나타나 함께 노래를 불러주시니 진짜 큰 선물처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즐거워 했다.

법무부 프리미아방송국과 김덤편터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프리미아 방송국 공개 방송 '프리미아 놀자'를 시작으로 전국 소년원을 방문, 음악공연을 진행하는 예술단체이다.

/김영태 기자

송천정보통신학교, 성금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정보통신학교)이 추석 명절을 맞아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소년원(원장 오연호)은 17일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인 '양지뜸천사의 집'(원장 임영숙)을 위로 방문,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18일에는 '사랑자리 임마누엘청소년원' (소장 이성운)과 '전주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해성)' 등 인근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시설 3곳을 방문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직원들의 매월 월급에서 소정의 액수를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전직원 동참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오연호 원장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석연휴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착수

전주시,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행정절차 완료 따라 이달 공사 발주 내년 완료

전주시가 설치된 지 38년이 경과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덕진공원 연화교(현수교) 재가설 공사를 본격화한다.

기존 덕진공원 연화교는 지난 38년 동안 시민들이 만개한 연꽃과 연잎 사이를 걸으며 추억을 쌓아온 장소로 널리 사랑받았지만 안전진단결과 'D' 등급으로 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을 위한 디자인 자문과 경관심의, 각종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달 중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기존 연화교를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연화교를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덕진연못을 가로지르는 260m길이의 연화교는 이번 재가설을 통해 폭이 기존 1.2m에서 3.3m로 양방향 교행이 편리해지고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탄 어린이 등도 편리하게 현수교 위에서 덕진공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곳에 천년카페 정자 3개동을 신축하고 삼태극 은하수길 조성 및 연못 주변 야간경관 조명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연화교 재가설과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시민들이 덕진공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업 시 생태도시국장은 "덕진공원을 전주 역사성과 대표성,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전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찾는 대표 생태문화공원으로 명실화할 계획이다"며 "연꽃과 연잎 사이를 걸을 수 있는 연화교가 재가설되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덕진공원으로도 이어지고 인근 전주 생태물놀이와 함께 명실상부한 전라북도의 대표관광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신감 회복 돕기

전주시, 근로자들과 경남 산청지역자활센터 방문

전주시가 자활 사업에 참여중인 자활 근로자들의 자신감 회복과 재충전을 돕고 나섰다.

시는 18일 경남 산청지역자활센터에서 전주시 자활 근로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산청지역자활센터 방문은 전주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자활사업 추진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자활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자립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산청지역자활센터 방문은 전주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자활사업 추진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자활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자립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산청지역자활센터 방문은 전주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자활사업 추진 사례를 직접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자활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자립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한 염색 체험과 허준 선생의 치유와 힐링의 명소로 잘 알려진 동의보감촌 탐방을 했다.

양도식 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자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참여자들이 타지역 우수 성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통해 자립 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산청지역자활사업단은 친환경 청소 전문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말꼬리사업단을 통해 학교와 기업, 아파트 단지 등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으며 약초재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습득과 관련 제품 생산을 통해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참살이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상생하는 노사문화... 전주시, 청원공감한마당

하중강 성공회대 교수 초청 강연

전주시는 18일 시청 강당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중 청원 공감한마당' 행사를 열고 노사관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중강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공무원 노사문화 특강'을 주제로 △공무원 노사관계 특강 △공무원 노조의 현황 및 주요

쟁점 △노사 관계발전을 위한 과제와 역할 △상생의 노사 파트너쉽 등 현장에서의 소통 강화를 위한 노사실무 및 사례 위주의 강연을 했다.

최현창 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노사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노사간 벽을 허물어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